



## 국가 소프트웨어의 지속 성장을 위해



손병두 | 서강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Arthur D. Little,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MEI) 경영학 석사,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명예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 상무이사, 동서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재)전경련 국제산업협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총장, 국제한인 경제인총연합회 이사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민이 고객 되는 지방경영』(공저), 『미래의 경영』(역서), 『지속 경제담론』, 『관리자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유형과 노사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 다수가 있다.

- 『붕어빵 교육 탈피 시급한데 사사건건 태클거는 교육부』
- 『내신 혼란 해결책은 대입 자율뿐』
- 『대학독립 출발점은 재정 독립인데...』
- 『한국 교육부는 ‘한가한 시어머니’』
- 『정부의 대학 간섭은 인재양성 권리 침해』
- 『인재는 경쟁 속에서 길러진다.』
- 『최고 인재가 외면하는 한국 대학』

이상은 2007년 고등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주요 일간지를 장식했던 머리기사 중 일부를 나열해 본 것이다. 정부와 대학이 진지한 토론과 협력된 모습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과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교육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감을 감출 수 없다.

2008년 이즈음에서는 정부와 대학이 합심하여 대학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1세기 산업환경에 맞는 연구 및 대학교육구조의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의 구축,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희망적인 기사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사전에 정리해야 할 몇 가지 바람을 적어 본다.

### 대학이 인재 양성의 주체가 되자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국가와 대학은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와 열정을 쏟고 있는지 자문을 해야 할 시기에 온 것 같다. 특히 대학의 고등교육 인재 양성 시스템은 전체 사회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속 성장을 꿈꾸는 우리의 미래는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 및 국가와 사회 전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교육정책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학문적 선도, 국가경쟁력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해 대학 및 국가, 산업계의 장기적인 계획 및 참여가 요구되지만 현재 우리는 전략적 계획의 한계와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 부족으로 선배들이 이룩한 성과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과거 눈부신 경제 성장을 기록한 시기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대 자본도,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도 아니다. 경제규모가 작았던 70년대 우리나라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인재 양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지체와 청년실업 확대와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갈망도 높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성장지체현상을 타파하려면 정부 주도의 규제 시스템을 대학 주도의 시장경쟁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 내고 이들의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으로

대학 환경의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는 기초학문의 위기와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국가 간 첨예한 경쟁논리에 따라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통한 경쟁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형 대학교육정책에서 대학이 주체가 되어 대학의 자율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는 전환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혁신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규모가 30조 원, 해외 유학경비가 6조 원으로, 이는 교육부 전체 예산의 25%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희망은 없다. 대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 이미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대학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산업화 초기에 만든 낡고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지 자문하고 싶다.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반드시 구별하고 대학교육은 대학에 맡기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제 자율과 책임이 대학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우리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을 보장받거나 이관 받는 수준을 넘어 대학 스스로가 성숙된 책임의식으로 대학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학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부는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대학교육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대학은 성숙된 책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